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세계 금융상황 타이트해졌지만..연준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
 - ◇ (칼럼)-중국의 '소박한' 성장 목표가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는 이유
 - ◇ (초점)-본드스왑부터 커브·크레딧까지 '롤러코스터'..달러들 "안전지대가 없다"
 - ◇ (초점)-원화, 달려본 아니라 위안화에도 대폭 절하..배경과 전망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제가 해제된 미국 텍사스주에서 "텍사스 재개방 파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불길에 넣고 있다. (로이터/셀비 타우버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1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33.8	-0.7%	-4.2%	+6.5%	유로	1.1952	0.3%	-2.2%	+8.9%
100엔 대비	1,041.9	-0.1%	0.9%	+1.1%	엔	109.00	-0.6%	-5.3%	+5.2%
유로 대비	1,357.8	-1.0%	-2.3%	-2.3%	위안	6.4945	-0.4%	0.5%	+6.7%
위안 대비	174.53	-0.5%	-4.7%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2,778.64	4.1%	7.1%	+7.2%
코스피	3,054.39	0.9%	6.3%	+30.8%	나스닥	13,319.87	3.1%	3.3%	+43.6%
코스닥	925.49	0.2%	-4.4%	+44.6%	S&P500	3,943.34	2.6%	5.0%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98.27	0.9%	5.5%	+19.8%
국고채 3Y	1.223%	15.7bp	24.7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596%	15.8bp	26.1bp	-14.5bp	미국채 2Y	0.149%	0.8bp	2.8bp	-144.0bp
국고채 10Y	2.092%	10.0bp	37.9bp	+3.0bp	미국채 10Y	1.625%	4.8bp	71.3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5.61	-0.7%	35.2%	-20.5%	한국 5Y	21.3bp	-1.5bp	-0.6bp	+0.1bp
금(현물)	1,726.41	1.5%	-9.0%	+25.0%	일본 5Y	15.2bp	0.2bp	0.2bp	-4.5bp
TR상품지수	2,819.55	-1.2%	5.2%	+7.8%	중국 5Y	32.3bp	0.0bp	4.3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15일(월)>

- 기재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10:00)
- 금감원, 2020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12:00)
-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14:10)

<16일(화)>

- 한은, 2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금감원,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대응방향(12:00)
- 한은, 2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한은, 2.2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7일(수)>

- 통계청, 2월 고용동향(08:00)
-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0:00)
- 금감원, 2020년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12:00)

<18일(목)>

- 국회 기재위·예결위 전체회의(10:00)
- 기재부, 2021년 AMRO 연례협의 결과(16:00)
- 금감원, 2020.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12:00)
- 한은, 1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19일(금)>

-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10:00)
- 기재부, 3월 최근경제동향(10:00)
- 기재부,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17: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15일(월)>

- 일본, 1월 기계류주문 (08:50)
- 중국, 2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2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미국, 3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1:30)

<16일(화)>

- 호주, RBA 3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9:30)
- 일본,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FIN/SUM 2021 행사 기조연설
-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17일까지)
- 일본, 1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2월 수입·수출물가·소매판매 (21:30)
- 미국, 2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1월 기업채고 (23:00)
- 미국, 3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17일(수)>

- 일본, 3월 로이더단칸 제조업·비제조업 지수 (08:00)
- 일본, 2월 수출입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2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1:30)

<18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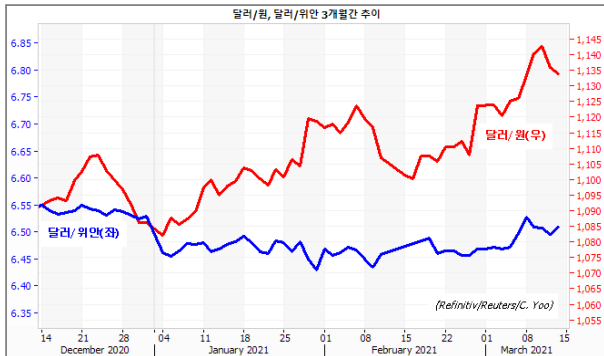
- 미국, 연준 FOMC 금리 결정 발표(03:00), 연준 의장 기자회견 (03: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3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1:30)
-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시작 (19일까지)
- 영국, 영란은행 금리 발표, 회의록 공개 (21:00)

<19일(금)>

-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
- 일본, 2월 CPI (08: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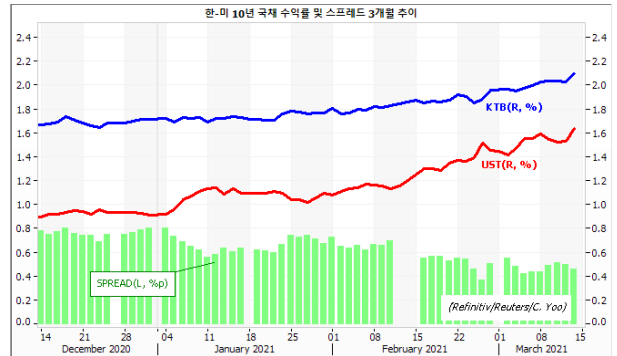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금리 변동성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20-1150 원이다.
- 미국 국채금리 흐름 따라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원화도 하루가 멀다고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다.
- 미국 경기 낙관론에 따른 긴축 발작 우려가 장기물 채권 금리를 끌어올렸고 이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 그렇다 보니 이번 FOMC 회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 연준의 채권시장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점도표 변화 여부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여부에도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 FOMC 회의(16-17 일)를 앞두고 발표될 미국의 2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16 일) 결과에 따라 시장은 앞서 변동성을 확대할 여지도 있다.
- 미국 국채 금리에 더해 원화가 위안화 따라서도 장중 보폭을 키우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18 일)도 챙겨봐야 할 주요 이벤트다.
- 변동성에 취약해진 심리 속에서 양방향 수급, 특히 커스티디 관련 수급 방향 따라 거칠게 움직이는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국내에서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로는 2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6 일), 2월 고용 동향(17 일) 등이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18일 오전 3시에 열리는 미국 FOMC 결과 발표와 30분 뒤 진행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다.
- 미국의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변수다. 현재 미국에선 하루에 2백만~3백만명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올해 여름까지 전체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연준 입장에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 추가적인 완화책을 내놓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때문에 연준이 지난 1월과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거나 유럽중앙은행(ECB)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의 규모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2분기에만 장기채 매입 규모를 늘리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 어쨌든 경기 회복 과정에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연준의 인식이 채권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주에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 한은은 16일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발표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 자산 버블 우려, 대내외 금리 상승 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입장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 통계청은 17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한은은 18일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에 3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을 발표한다.

(그래프/분석)-세계 금융상황 타이트해졌지만..연준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

(※ ECB 정책회의 이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런던 (로이터) -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달러 반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글로벌 금융 여건 긴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직 완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중앙은행들의 결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 여건은 환율, 금리, 주가 변동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로 과학적으로 정밀하지는 않지만, 골드만삭스는 매일 금융 여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이 지표들을 종합한 금융여건지수(FCI)를 만들었다.

금융 여건의 완화 또는 긴축 상황은 기업과 가계의 지출, 저축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하기에 골드만삭스는 FCI가 경제 성장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골드만삭스는 FCI에서 금융 여건이 100bp 긴축되면 그 다음 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고, 반대로 여건이 완화될 경우 성장률이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집계한 지표들이 현재 제시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매우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해 현재까지 60bp 상승했는데도 왜 연준이 대응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융 여건이 지속적으로 긴축된다면 우려할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현재 수준은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닷웨스트 은행은 지적했다.

FCI 구성 요소인 달러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올해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는 작년 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를 제외하고 주가는 대체로 보험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 금리 역시 큰 변화가 없다고 모간스탠리 에셋매니지먼트의 짐 캐론 글로벌 거시 전략 헤드는 지적했다.

그는 "수익률 상승이 미국의 금융 여건을 실질적으로 긴축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채 10년물 실질 수익률이 -0.6%인 이상 아직 완화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래, 지금까지의 수익률 상승은 큰 범위에서 시장과 경제를 해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긴축 발작, 2018년 말, 작년 3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연준의 도비시한 스탠스는 모두 골드만삭스의 미국 FCI가 100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나타났다. 현재 FCI는 98 포인트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U.S. financial conditions index

Conditions tightening but still close to loosest on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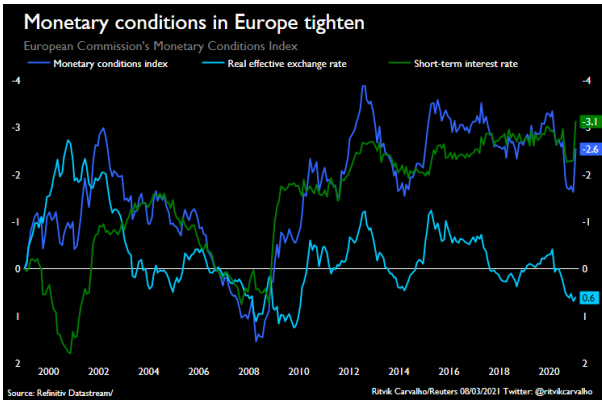
FCI value in points
Source: Goldman Sach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ECB는?

유럽중앙은행(ECB)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이전 4.2%에서 3.8%로 하향 조정하는 등 미국과 달리 유로존 경제 회복은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로존의 대표적 안전 자산인 독일 국채 수익률은 올해 초 이후 30bps 상승했고, 통화 여건도 긴축 국면에 들어섰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파비오 파네타 ECB 정책이사가 채권 수익률 상승은 "달갑지 않으며 저지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히는 등 ECB 관료들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ECB는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긴급 채권매입 프로그램(PEPP)을 통해 채권 매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가 1월 21일 정책회의에서 금융 여건이 "적절하다"고 말한 뒤 채권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였고 은행 대출 기준은 타이트해졌다고 길레스 댜 AX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그는 "이제 ECB가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ECB는) PEPP을 통한 채권매입을 가속화하고 이것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많은 이들은 금융 여건이 2013년 또는 2018년 수준까지 간축되기 전에 연준 역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부채 수준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미국 및 세계 경제가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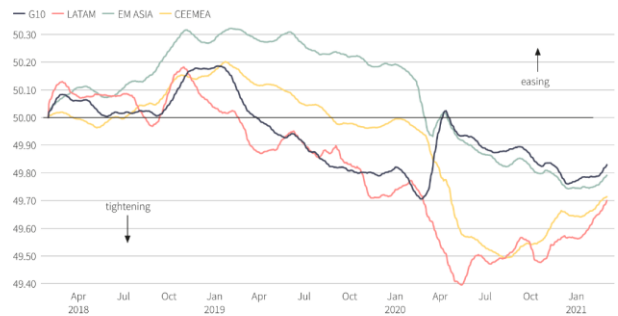
연준 역시 유럽의 금융 여건이 결국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일부 차입 시장이 완전히 폐쇄되면서 금융 여건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목격했다. 국제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이며 금리가 오르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지나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나티시스의 더크 슈마허는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금융 여건) 수준에 대해 우려하지 않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타이트해지느냐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inancial conditions across emerging markets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 Source: BF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칼럼)-중국의 '소박한' 성장 목표가 변동성 확대를 예고하는 이유

(※ 이 칼럼은 칼럼리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로이터)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와 풍부한 재정 부양책을 고려하면 달성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비교적 낮은 성장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악성 부채 억제와 산업 내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으며, 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뜻이기도 하다.

재정 부양책은 예상보다 규모가 컸고 재정적자와 지방정부 특별 채권 할당은 작년에 기록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태여서 고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발표된 성장률 목표는 고성장 지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연초지만 현재 페이스만 유지해도 추가 부양 노력 없이도 올해 성장률은 6%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기관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1%를 예상했고 아이리스 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6% 이상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낮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PBOC)은 신용 공급을 늘릴 부담감이 없으며 당국은 통화 공급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즉, 관료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자산 버블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좀비' 국영 기업들은 퇴출될 것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된 5개년 계획 세부 내용을 봐도 GDP 성장이 지출 내역에 있어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았다. 경제에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고 투기와 산업 내 비효율성 제거가 진행되면서 올해 중국 경제는 작년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 필자 트위터: <https://twitter.com/ywchen1>)

(초점)-본드스왑부터 커브·크레딧까지 연이은 '롤러코스터'..달러를 "안전지대가 없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안정되는 듯하던 원화 채권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크레딧물음 중심으로 매물이 늘며 단기물 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가운데 구간별 수익률곡선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포지션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다.

12일 오후 2시 48분 현재 3년 국채 선물은 전날보다 9틱 하락한 111.09, 10년 선물은 40틱 내린 126.77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까지만 해도 최근까지 약세를 보였던 2년물음 중심으로 형성된 매수세 덕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크레딧물 매도가 늘어나자 장·단기 모두 밀리는 형국이다.

채권시장은 이번 주 들어 극심한 변동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고채 2년 및 3년물 입찰 후폭풍과 커브 스티프너의 손절로 주초에 단기 금리 급등세를 보인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커브 스티프닝이 나타나며 다수 기관의 손익 변동성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본드스왑 스프레드도 큰 폭으로 움직였다. 지난 주말 10bp, -6bp 수준이었던 본드스왑 스프레드는 지난 10일 3bp, -15bp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꺾인 11일 3년 본드스왑 스프레드는 3bp, 10년 스프레드는 -11bp 수준이었다.

12일에는 이번 주 금리 급등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크레딧물 매물이 늘며 시장참가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축소돼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사들이 포지션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금리 상승뿐 아니라 커브와 헤지, 크레딧 포지션까지 변동성 확대 압박이 커지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딜러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A 시중은행 채권운용부장은 "커브 손절하면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피신하면 저쪽에서 털린다"며 "저평가 때문에 현물 들고서 선물 헤지도 완벽하게 안 되는데 본드스왑 변동성 때문에 IRS로도 헤지가 안 되니 채권 보유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저기서 '누가 얼마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는 상황이라 심리가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포지션이 없었다면 마음이 편할 텐데 지금까지 채권을 안 샀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 보험사 자금운용팀장은 "지금 채권 매수 쪽에 비빌 언덕이 없다"며 "단기물로 한 번 맞고, 본드스왑으로 한 번 맞고, 커브로도 맞다 보니 다들 자신감을 잃은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왔지만 보험사들의 수요가 금리를 누를 정도로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며 "보험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발행량을 모두 소화할 정도로 크지 않은 데다 아직 1분기라 급하지 않고, 듀레이션 속제는 본드 포워드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며칠 전에 30년물이 강해지니까 10년 선물 가격이 급등하다가 되치기를 당

했다"며 "이것 때문에 10년, 30년 커브 포지션도 크게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10년물 2.2%에서 안정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안정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입찰 때마다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초점)-원화, 달러뿐 아니라 위안화에도 대폭 절하.. 배경과 전망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 압력을 키운 사이 위안화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 원화는 위안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원화는 달러에 대해 약 4% 절하 중인데 위안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로 절하했다. 작년 말 166 선 밑으로 급락하기도 했던 위안/원 (CNH/KRW)은 이번 주 한때 175 선까지 올라 작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불거진 긴축 발작 우려는 위안화와 원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지만, 위안화와는 달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 차별화된 외국인 행보

미국 중심의 리플레이션 거래와 이에 따른 달러 강세 전환은 위안화와 원화에 모두 약세 재료다. 한편 중국 정부의 유동성 회수와 이에 따른 긴축 우려가 부상했지만, 이는 당장 시장 추세보다는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원화와 위안화의 최근 흐름을 보려면 지난해 하반기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쌍순환 정책에 따른 내수 부양 의지와 위안화 국제화 정책 등을 감안하면 위안화 강세 유인이 컸는데도 작년 하반기에는 원화가 위안화에 대해 강해지는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중국과 한국 펀더멘털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도 양국 사이에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 시장 수급 자체에 큰 차이가 있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2월 신흥국 주식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본 유입은 6억달러에 그쳤는데, 중국으로의 유입은 78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거뒀다.

한편 이 기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한 랠리 뒤 고평가 인식이 퍼지면서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 약 20억달러 순매도를 기록했다.

채권 투자의 경우에도 한국으로의 순투자는 80억 달러였던 반면 중국으로는 147억 8천만달러가 유입됐다.

한 시장 전문가는 "펀더멘털 관련 우려가 없다면 외국인 수급 영향이 큰데 채권은 헤지도 많아 결국 외국인 주식 자금을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중국으로 자금은 계속 들어가지만 한국은 올해 그렇지 않다. 이런 데다 개인을 비롯한 해외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원화는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1월과 2월 두달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약 83억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런 가운데 곧 있을 연간 배당금 지급을 앞두고 배당 관련 역송금 수요로 인해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소시에떼제네랄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동성과 수익률에 힘입어 작년 말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머징 시장 모멘텀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되돌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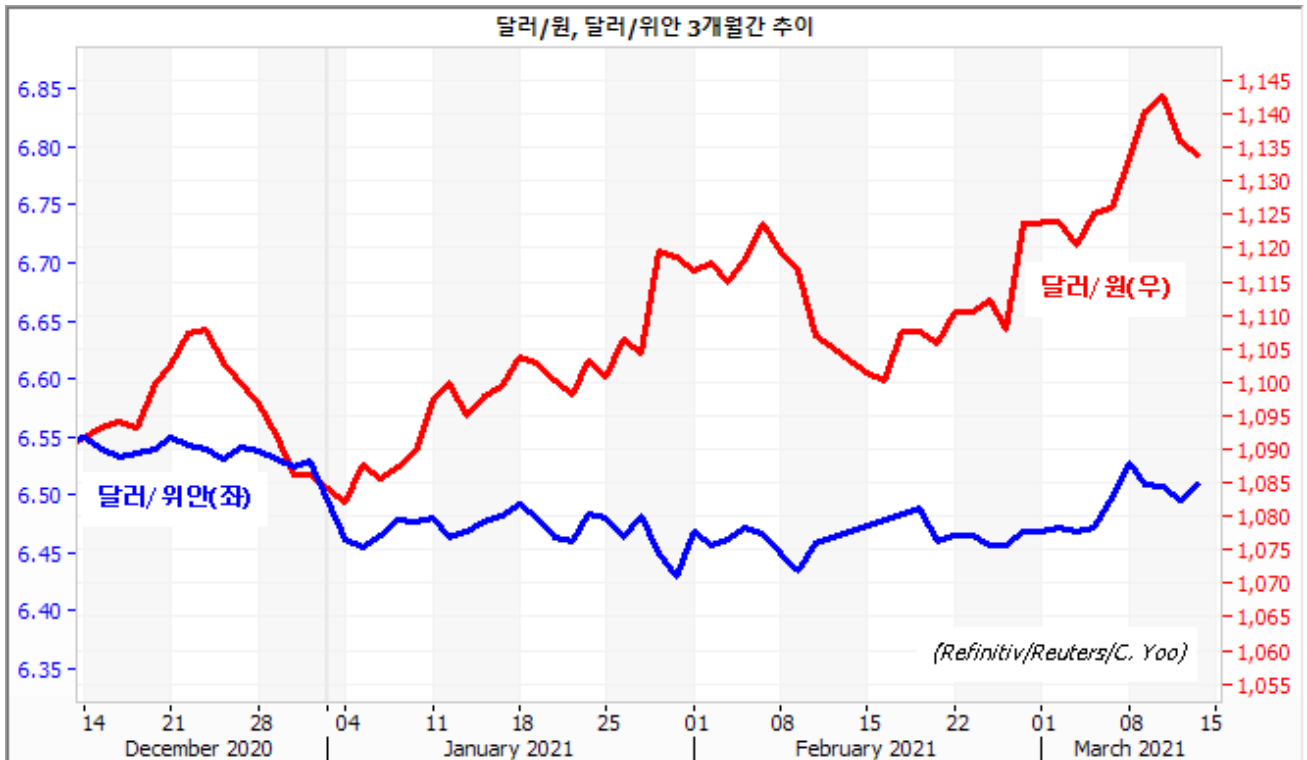
또 2015년 이후 중국은 이머징 자금 유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다른 신흥 시장으로의 유입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 증시로의 외국인 귀환 시점이 원화가 위안화와 다시 보폭을 맞출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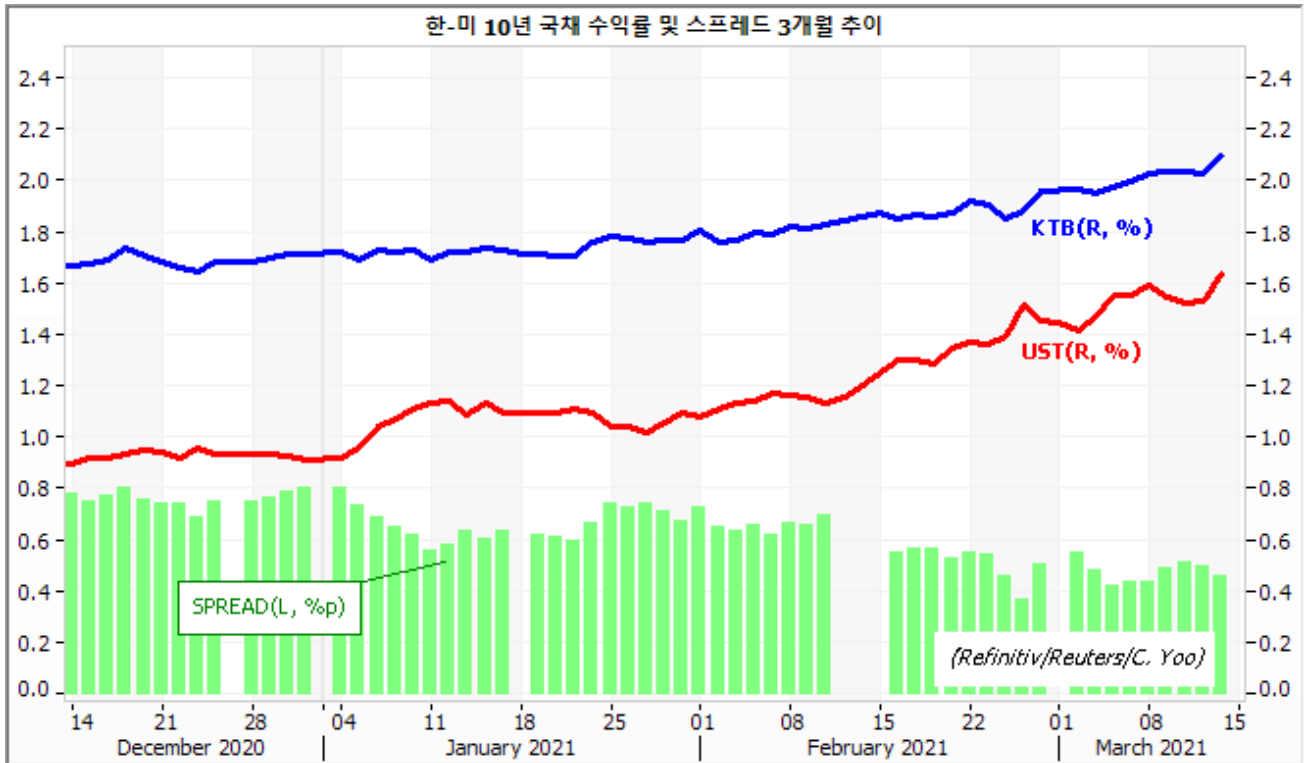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U.S. financial conditions index

Conditions tightening but still close to loosest on record

—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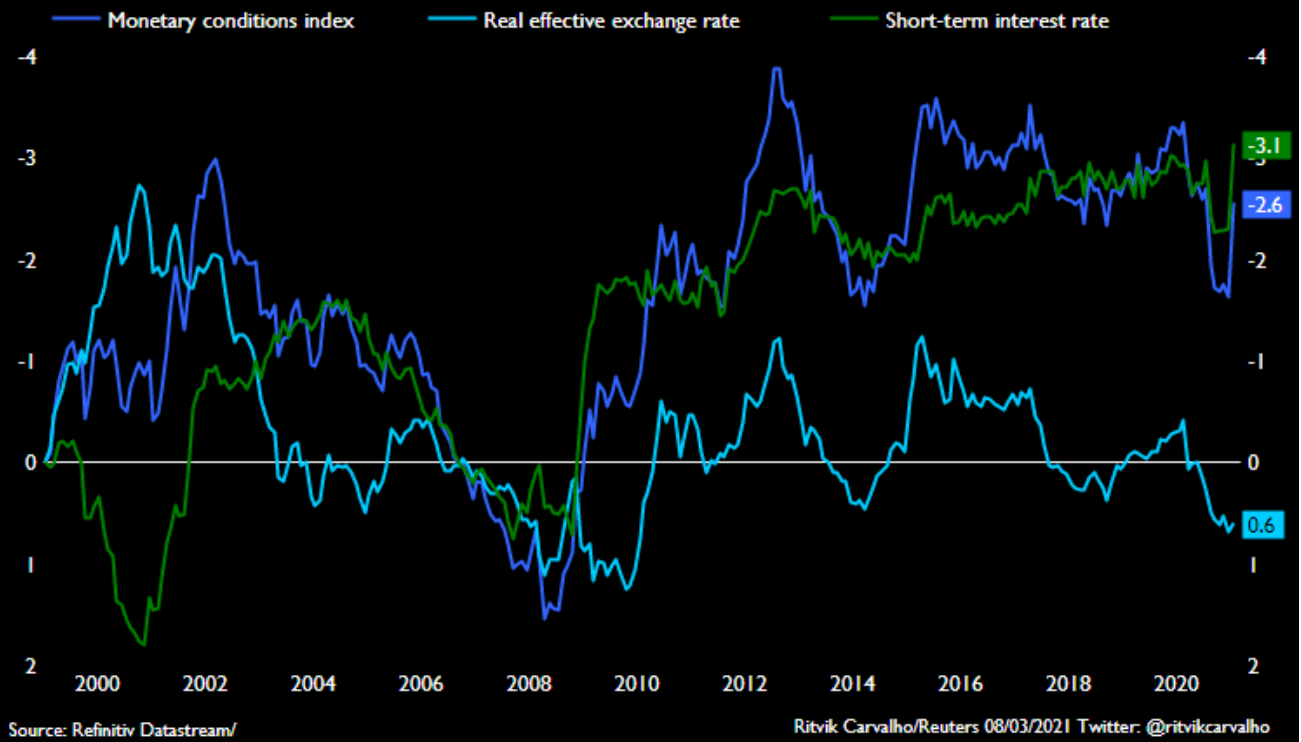
FCI value in points

Source: Goldman Sach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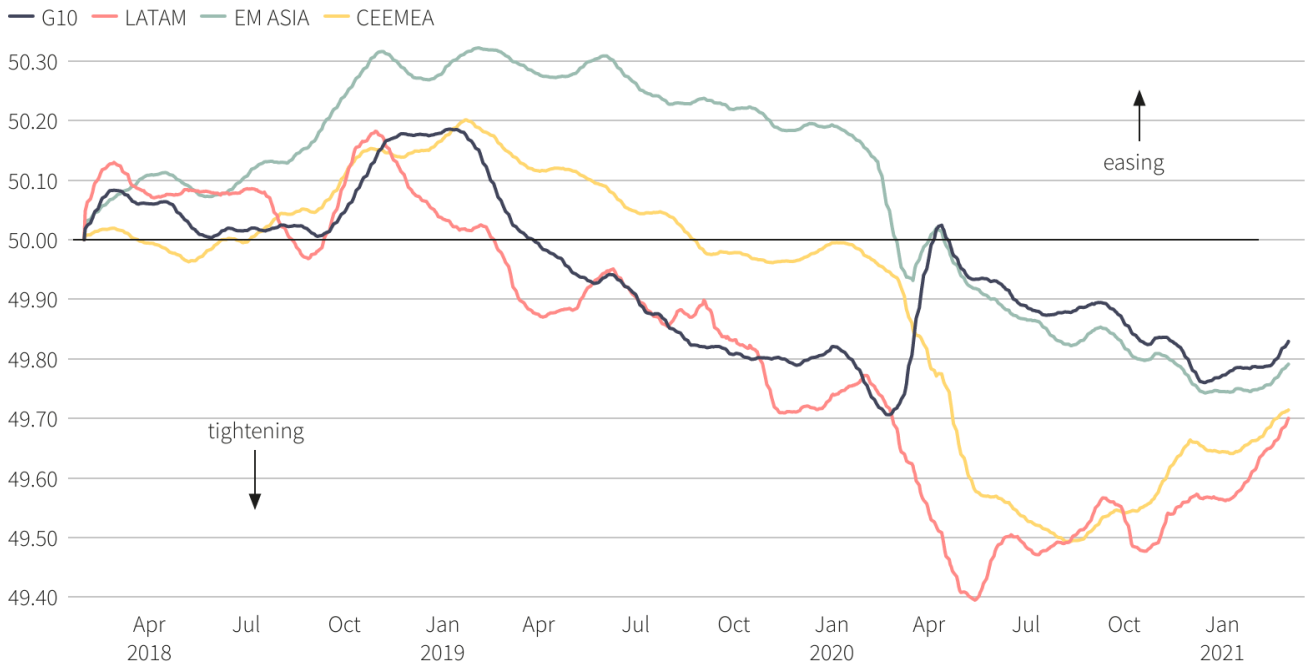
Monetary conditions in Europe tighten

European Commission's Monetary Conditions Index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Financial conditions across emerging markets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s
Source: IIF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